만남

2016 6월
통권 137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3
신부님 칼럼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하느님을 찬미함(시편 8,2. 4-10)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38~140	8
기도 소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11
우리들의 이야기	성모님의 밤; 헌시봉헌	11
찬 양	그리스도와 함께	13
공동체 소식		14
지방 공동체 소식		16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19
미사안내		20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인간 연대

나이든 이들, 소외된 이들, 혼자 사는 이들이 대도시 안에서도 만남과 연대의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신학생들과 수련자들

신학생들과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며 그들의 파견 소명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뵌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신 부 님 칼 럼 ❖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8-29)

이번 달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사제 성화의 날' 이 있는 성월입니다.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마태12,35)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립2,5)
불가(佛家)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一切唯心造.(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情)을 가지게 되면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당신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손길로 이웃을 쓰다듬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묵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수님 되십시오.

❖ 하느님을 찬미함(시편 8,2. 4-10)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시편 8장 2절,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8, 2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4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5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6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7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8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9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10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다. 내가 미워하고 때때로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창조되었다. 고통도 죽음도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다.

닥친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들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도록 하라. 그것들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치도록 하라.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모두를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다. 하느님을 찬양하기 전까지 인간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악은 내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대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며 내 시선으로 가르고 판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어떤 때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이다. 내 기준(마음)에 따라 옳음에 감탄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내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지금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밉고 상처를 준 사람을 보내주신 하느님에게 원망을 퍼붓기 마련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피조물처럼 대하는 것이 악이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장 '온 세상아 주님을' 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범 제 1 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교리138

제10장 무익한 이야기를 피함

1 너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사이의 소란을 피하도록 하라. 세상일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면 제아무리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지 않게 마음의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 나쁜 것에 물들기가 쉽다. 내가 전에 한 일을 생각할 때면 차라리 그때 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서로 무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길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양심에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서로 많은 말을 함으로써 위로를 찾고자 함이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으로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가 즐겨 말하고 또 즐겨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것, 많이 원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거슬리는 일들이다.

2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쓸데없이, 또는 공연히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적 위로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해야 할 적절하고 유익할 때가 오면 이로움을 가져올 내용을 말하라. 나쁜 습관이 있고 영적 발전에 무관심하면 말을 삼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영적 상태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 안에서, 서로 통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는, 완덕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교리139

제11장 성덕에의 열망과 평화를 구함

1 남의 말과 행동에 참견하지 않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다면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바깥일을 찾으면서 안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순진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마음껏 평화를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2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그리 완전했으며, 관상적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여 모든 세속적 욕망을 없애는 데 힘써 온전히 극복하여 모든 세속적 욕망을 없애는데 힘써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정을 붙이고 자유롭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욕과 환성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사라질 악습이라도 완전히 극복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지려는 갈망에 타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채로 있다.

3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음의 번잡함을 없앤다면 하느님의 일에 맛들일 수도 있고 천상적 관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가 욕망과 그릇된 열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성인들이 걸어간 완덕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역경에 직면하여도 너무 쉽게 실망하며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

4 그러나 우리가 전장의 용맹한 사람들처럼 곤경에 대항하여 맞서려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이다. 싸워서 이길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은총에 의지하며 싸우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 하시기 때문이다. 외적인 규정에 의존하여 완덕의 진보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신심은 오래지 않아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5 매년 악습 하나씩만 뿌리 뽑는다면 오래지 않아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원을 한 지 여러 해가 된 오늘에도 입회入會 초보다 더 낫지도, 더 조촐치도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의 열정이 날로 커지고 날로 진보가 되었어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처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의 한 부분이나마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처음에 조금만 힘쓴다면 후에는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행할 수 있으련만!

6 오랫동안 하던 것을 버리기도 어렵지만 자기 의지를 거슬러 나아가기는 더욱 어렵다. 네가 작고 가벼운 것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일을 이겨 나갈 수 있겠는가? 유혹이 있거든 처음부터 끊어 버리고, 좋지 못한 습관은 처음부터 익히지 마라. 점점 더 큰 악으로 빠져들게 될까 봐 두렵다. 훌륭한 생활이 자신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영성의 진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리140

제12장 역경의 이로움

1 가끔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여경은 우리가 귀양살이 중에 있다는 것과 세속 일에 희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잘못한 일이 없고 잘못 생각한 게 없는데도 남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러한 괴로움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일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허영심을 드러낼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을 더 찾으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 사람들이 주는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한 뜻한 뜻을 지닌 사람이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악한 생각으로 괴롭게 되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느님 없이는 사소한 선善 이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은 근심하여 슬피 울고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때가 어서 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는 완전하고 충만한 평화와 안전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안네 신부

❖ 기도 소개 ❖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밤을 보호해 주소서.
주님은 저의 참된 안식처이시니
평화로이 잠들게 해 주소서.
저를 지켜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친히 구원하신 이 몸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육체의 멍에를 지고 있는
저를 잊지 마소서.
저의 수호자이신 주여,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로마의 하뽈리뚜스 (3세기)

❖ 우리들의 이야기 ❖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2016.05.04 성모님의 밤, 헌시봉헌 서유미 레지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께서는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아는 가장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당신의 믿음과 순명에 있겠지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약혼자를 둔 처녀의 몸으로 천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의 안위보다,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으신 사람입니다.
근심과 걱정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먼저 바라본 분이십니다.
당신의 겸손한 이 고백은, 언제나 제 마음을 찌릿하게 흔들기도, 또 부끄럽게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느 날 문득, 당신을 바라보며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인자하신 당신께서 늘 바라보고 계신 곳은 어디일까?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 졌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닿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 늘 세속적인 위로와 보이는 것들에만 내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당신을 바라보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당신처럼 순명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제 시선을 오롯이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순명하는 것은 언젠가 여건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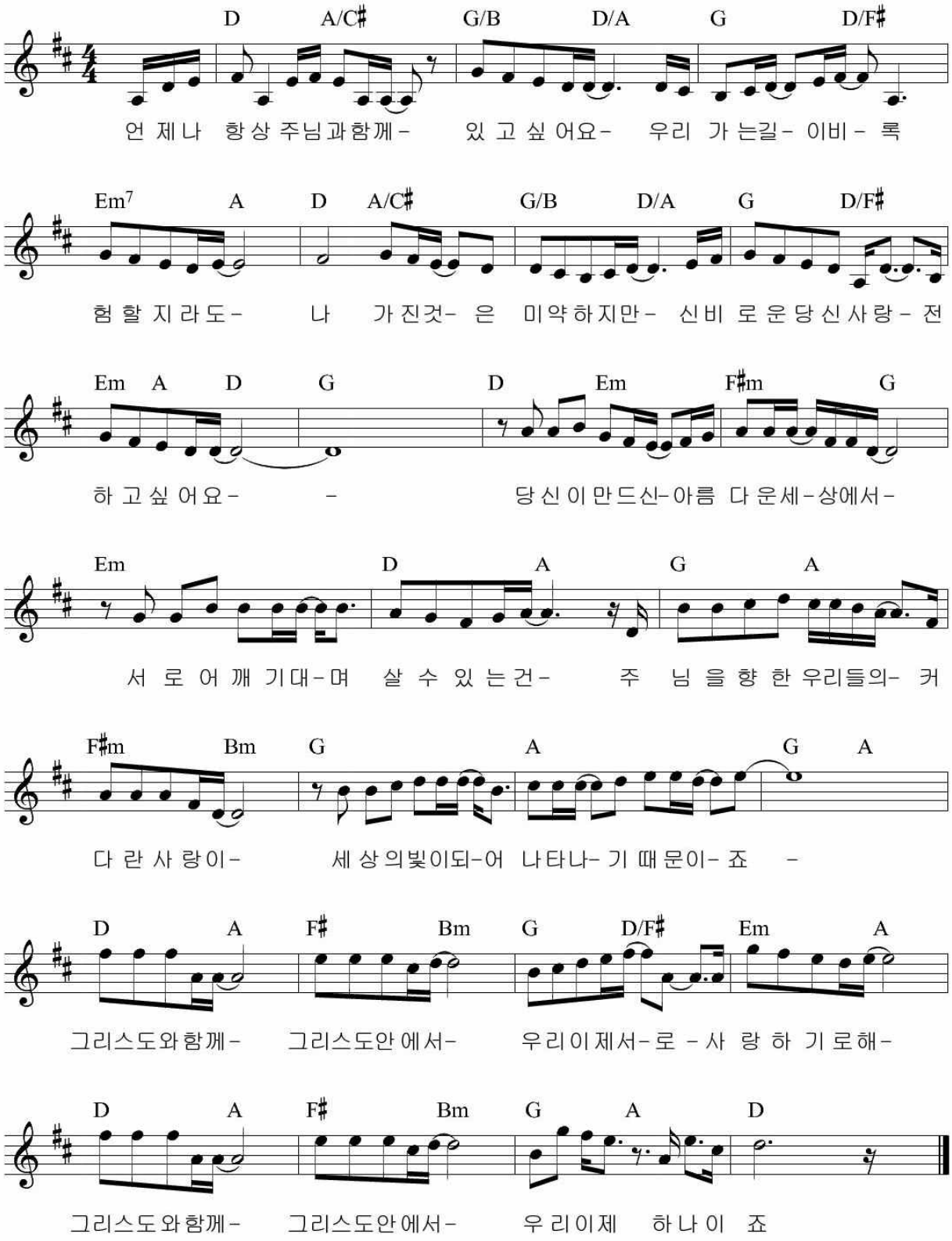
성모님의 아름다운 비움을 배울 수 있기를.
언젠가는 저도, 제 안에 조금 비워낸 그 자리에 하느님을 채울 수 있기를,
당신과 함께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부족한 저에게는, 제 작은 신앙이 세상의 악함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함께하는 따듯한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따듯한 장미 향기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당신의 딸이자 부끄럽지 않은 레지오 단원이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마리아님,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8

조광형



❖ 6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유스티나 (St. Justina)	홍 영 숙
13일	안토니오 (St. Antonio)	김 현 규
22일	토마스 모어 (St. Thomas More)	김 서 율
24일	세례자 요한 (St. Johannes)	김 성 철 김 민 규 남 궁 경 박 진 태 최 현 봉 박 재 형 박 찬 진
29일	베 드 로 (St. Petrus)	김 부 남 이 영 원 최 윤 석 민 호 건 신 형 석
	페 트 라 (St. Petra)	김 상 미
	파 울 라 (St. Paula)	최 영 자
	바 오 로 (St. Paulus)	송 문 규 이 민 재 배 재 현 진 태 근 박 종 래 박 준 병 최 승 진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3일	안토니오	문철주(H) 박일열(H)
24일	카타리나 (St. Catherine)	고희경(B)
29일	바 오 로 (St. Paulus)	최한우(O) 임완규(O) 이범이(H)

❖ 6월 성가번호

6월	입 당	봉 헌	마 침
5일	199	220	2
12일	46	511	202
19일	39	217	44
26일	34	210	200

❖ 6월 미사 전례 봉사자 ❖

6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5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허길조(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4구역
12일	이선주(로사) 박귀동(토마)	허선애(임마누엘라) 김잔디(아그네스)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회
19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심은희(안나)	배성우(도밍고)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요셉 마리아회
2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2차
계(€)	209.57	238	232.70	377.70	215.98	177.90

❖ 자진헌납금 ❖

2016년 4.18 ~2016년 5.22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김기연, 김형웅, 이수웅,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한선지, 현영애, 이공종, 손수희,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정정숙, 강신행, 박종래, 민경화, 이종하, 윤예진, 최승진, 김건, 김경미, 이중지, 이수현, 오옥수, 이정은, 한말조

구좌입금 :

강일남, 홍경영, 남궁 춘배, 최성자, 김대현,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유럽 사목자 회의기간입니다. 주임 신부님의 출장으로 이 주간에는 평일 미사가 없겠습니다. 유럽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임 신부님께서 오슬로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오슬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4. 새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방은일, 황태엽, 위호진,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6월 미사는 야외에서 친교와 함께 봉헌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영숙 데레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일학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선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진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비자교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순자 마리아	040/ 4109 1742
레지오 마리애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순자 마리아	040/ 4109 1742
레지오 마리애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영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레지오 마리애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성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묵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6 월 중 행 사 예 정 표

2016년도 (예수 성심 성월)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 례 일	단체행사	비 고
1	수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2	목		성체거동	
3	금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성화의 날)	복음 나누기 기도회1	
4	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브레맨 공동체
5	일	연중 제10주일	사목협의회	
6	월	현충일		
7	화			
8	수			
9	목	단오		
10	금		2구역 소공동체	
11	토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오스나브뤽 공동체
12	일	연중 제11주일	청년 소공동체	
13	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유럽 사목자 회의 (평일 미사 없음)	
14	화			
15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6	목			
17	금			
18	토			하노버 공동체
19	일	연중 제12주일(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	월			
21	화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하지	19:00 사목 관계자 회의(Dom)	
22	수			
23	목		연령회	
24	금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주임 신부님 오슬로 공동체 방문
25	토	6·25 전쟁일		
26	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7	월			
28	화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29	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30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